中國語文學 第49輯(2007. 6) 419-437쪽

“大可”의 화용의미 분석

이 선 희*

<目 次>

Ⅰ. 시작하는 말
Ⅱ. ‘大’와 ‘可’의 주관성
Ⅲ. ‘大可’의 화용의미와 전제
Ⅳ. 맺는 말

Ⅰ. 시작하는 말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大可’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大可’는 형용사 ‘大’와 조동사 ‘可’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조로 전자는 후자를 수식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형태상으로 조동사 ‘可’나 ‘可以’외에 다른 조동사는 긍정문에서 ‘大’와 흔히 결합하지 않는다. 이는 ‘大可’가 상당히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大能’, ‘大會’, ‘大想’, ‘大應該’, ‘大愿意’ 등은 긍정문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이중에 부정사와 결합하여 ‘不大會’, ‘不大能’, ‘不大想’처럼 부정문에서 주로 ‘大’와 결합한다. ‘大可’의 또 다른 특징으로 두 단어의 결합정도가 비교적 강하여 그 사이에 어떤 삽입성분을 허용하지 않아 ‘大可’는 마치 한 단어처럼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의미적으로 ‘大可’는 하나의 단어가 아닌 부사구이므로 사전에 실려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의미를 사전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전임강사

www.kci.go.kr

인 두 단어의 의미를 합쳐 '完全可以(완전히/충분히) ~할 수 있다' 의미로 유추할 수 있다. '完全可以'는 '可以'의 의미를 강조한다.

현대중국어에서 '大可'는 구어에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실제 접한 예들에서 위의 의미로만 분석하기에는 앞뒤 문맥과 의미를 연관지어볼 때 이해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는 '大可'의 의미가 단순히 '大'와 '可以'의 의미결합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大可'의 강조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그것이 화용적으로 어떤 기제를 통해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고찰은 '大可'에 대한 분석이 국내에서나 중국내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중국어에서 대표적인 조동사인 '可以'의 의미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의미나 형식이 유사한 형태들도 논의에 포함될 것이다.

Ⅱ. '大'와 '可'의 주관성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느 유명한 스타배우를 흠모하던 소녀가 있었는데, 일가족이 딸의 소원성취를 위해 홍콩에 왔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 아버지가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을 보도한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그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단락이 나온다.

(1) ……而在女儿无法好好与偶像見面談話后, 68歲的楊父在香港跳海自殺。香港≪明報≫, 今日發表社評表示, 對于這樣的悲劇, 社會大可沉默。然而, 它對追星族具有警示作用, 所以值得指出: ……
(딸이 우상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게 되자, 68세의 양씨 아버지는 홍콩에서 바다에 몸을 던져 자살했다. 홍콩 ≪명보(明報)≫는 오늘 사설을 발표하여, 이러한 비극에 대해 사회는 충분히 침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밑줄 친 "大可"구문을 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일반적으로 "大

www.kci.go.kr

可”의 의미는 “충분히 ~할 수 있다(完全可以)”로 이해되는데, 이 문장을 “홍콩 ≪명보(明報)≫는 오늘 사설을 발표하여, 이러한 비극에 대해 사회는 충분히 침묵할 수 있다고 밝혔다”라고 표면대로 이해한다면 앞뒤 구문과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다. 또 “可”의 의미를 가능의미가 아닌 허가의미로 해석하여 “홍콩 ≪명보(明報)≫는 오늘 사설을 발표하여, 이러한 비극에 대해 사회는 충분히 침묵해도 된다.”라고 해석해도 어딘가 좀 어색하다. 여기서 “大可沉默”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의 문제로 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본고의 분석은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우선 ‘大可’를 이루는 ‘可’와 ‘大’의 의미를 간단히 보자.

현대중국어에서 단음절 조동사 “可”의 사전적 의미는 가능이나 허가, 가치를 나타낸다.[1)]

(2) 可望丰收 (풍작의 가망이 있다.) 가능
可大可小 (커도 되고 작아도 된다) 허가
我沒什么可介紹的了。(나는 소개할 만한 것이 없다.) 가치

여기서 조동사 용법의 “可”가 “可以”의 의미와 같은데, 이는 ≪現代漢語八百詞≫(337쪽)에 나와 있는 “可以”의 용법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1. 가능
這間屋子可以住四个人。
(이 방은 4명이 잘 수 있다.)
2. 용도
棉花可以織布。
(면화는 천을 짤 수 있다.)
3. 허가
他可以去, 你也可以去。

1)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333쪽.

www.kci.go.kr

(그가 가도 되고, 너도 가도 된다.)

4. 가치

這个問題很可以研究一番。

(이 문제는 아주 연구해 볼만 하다.)

≪現代漢語八百詞≫에서 '용도' 의미의 "可以"에 대해, 부정형이 "不可以"가 아니라 "不能"으로 보는데, 이는 '용도'의미가 곧 '가능'과 통함을 뜻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사전에서는 현대중국어 조동사 "可"와 "可以"의 의미를 '가능', '허가', '가치'의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하고 있다. 이 때 '가치'는 '가능'이나 '허가'보다 더 주관적인 개념이다.

이처럼 조동사가 하나의 의미항목이 아닌 다수의 의미항목을 가지는 다의성 현상은 인류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는데, 특히 최근에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은유와 환유개념을 이용해 이를 설명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劉利(1996)는 고대중국어에서 '可'의 의미를 '能够', '應該', '値得'와 '能力'의 네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能够'를 [+객관조건][+허가]의 能够1, [+주관인지][+허가]의 能够2, [+허구조건][+허가]의 能够3의 세 가지로 다시 나누었다. 또 應該의 의미요소는 [+주관인지][+응당][+주장]이며, 値得의 의미요소로 [+주관인지]와 [+조건구비]로 각각 분석하였다.[2)]

또 朱冠明(2003)은 중국어 조동사를 의미정도에 따라 '가능성', '개연성', '필연성'으로 구분하고, 의미유형은 다시 '동력정태(動力情態)'와 '도의정태(道義情態)', '지식정태(知識情態)'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동력정태란 화자의 주관적 태도와는 무관하며, 문장에서 주어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거나(能이나 愿意), 객관적인 가능성과 필연성(能이나 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도의정태는 문장주어가 행하는 어떤 행위의 가능성이나 개연성, 필연성 등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

2) 劉利(1996)에서는 '能力' 의미항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본고에서는 '能力'을 '能够' 항목과 함께 가능으로 본다.

www.kci.go.kr

하는 것으로 ‘可以’, ‘應該’, ‘必須’가 여기에 속한다. 지식정태란 화자가 명제의 진실성에 대해, 이것이 ‘가능’인지, ‘개연’적인지, ‘필연’적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데, ‘可能’, ‘應該’, ‘一定’ 등이 있다.

이상으로 우리는 ‘可(以)’가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조동사임을 알 수 있다. 조동사의 다의성은 기본의미에서 확장되는데. ‘可’의 기본의미는 ‘가능’이고 ‘허가’는 ‘가능’의미가 은유나 환유와 같은 인지과정에 의해 확대되어 생성된 개념이다. 다음의 영어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朱冠明 2003에서 인용)

(3) “Someone can sneak in here”implies “someone may sneak in here”.
(“누가 여기에 몰래 들어올 수 있다”는 “누가 여기에 몰래 들어와도 된다”를 내포한다.)

이는 현실세계에서 어떤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화자의 정신세계에서의 ‘가능’으로 보게 되면 곧 그 행위에 대한 ‘허가’를 뜻한다는 은유가 작용한 때문이다. ‘可’의 가치의미 역시 ‘가능’에서 확대되었다. 우리는 흔히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필요와 가치가 있을 때, 이를 행해도 된다고 말한다. 이는 역으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허가할 경우에 그 행위가 이루어질 가치를 가진 경우가 많음을 뜻한다. 이러한 경우가 자주 출현하여 나중에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의 가능의미가 바로 ‘어떤 행위를 할 만하다’의 가치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휘의미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사전에서 예로 든 ‘可以研究’에서 ‘研究’란 말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진 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감안해보면, ‘可’의 ‘가치’ 의미란 뒤에 나오는 동사의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可以’의 의미와 관련하여 간과해선 안 될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你可以走了”처럼 엄밀히 말하면 ‘허가’를 나타내는 문장이 일상대화에서 화자가 청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권유’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

www.kci.go.kr

이다. 이는 화용법적 의미로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좋다'는 허가는 곧 그 행위를 하라는 권유를 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치'의미도 때로는 '권유'의 기능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권유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가치를 언급함으로써 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일종의 간접언어행위로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가치의미를 가지는 '值得'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를 보자.[3)]

(4) 目前報价爲8999元, 非常值得購買。
(현재 가격은 8999원으로 충분히 구매할 만하다.)

어떤 물건의 가격이 적당하여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할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가치는 또 새로운 책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 독자로 하여금 책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어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5) ≪誰不失眠≫ 值得玩味
(6) ≪云岩胜景≫ 值得一讀

인지언어학의 시각에서 보면, '值得'와 같은 가치의미가 일상대화에서 사용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화자가 생각하기에 어떤 일이 누군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4)] 권유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가치' 의미가 '권유'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청유문에서 자주 보이는 동사중첩이나 '一下'와 함께 쓰인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3) '值得'의 사전적 의미는 '价錢相当;合算'과 '指這樣去做有好的結果'이다. 즉, 동작이나 행위의 가치를 말함으로써 그 행위를 권유하는 것은 결과를 통해 행위를 대신하는 환유 'RESULT FOR ACTION'로 볼 수 있다.
4) 屈哨兵(2006) 참고.

www.kci.go.kr

(7) 值得看看、有些也值得學學。(볼 만하고, 어떤 것들은 배울 만하다.)
(8) 值得我們思考一下。(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하다.)
(9) 好听的外語歌, 值得听一下。(듣기 좋은 외국노래는 들어볼 만하다.)

요컨대, ‘可’의 기본의미는 ‘가능’이며, ‘허가’나 ‘가치’는 모두 ‘가능’에서 은유를 통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허가’나 ‘가치’에서 ‘권유’ 의미도 생성되었다. 그러나 이들 의미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동시에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형용사 ‘大’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大’는 원래 명사를 수식하여 구체적인 사물의 크기, 형체가 ‘크다’를 가리키다가, 좀 더 추상적인 동사, 형용사를 수식할 경우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가 ‘심하다’를 뜻한다. 아래는『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1998, p.229)에서 ‘大’에 대한 해석이다.

❶ 在體積、面積、數量、力量、强度等方面超過一般或超過所比較的對象(跟‘小’相對): 房子大／地方大／年紀大／聲音太大／外面風大／團結起來力量大
❷ 大小的程度: 那間房子有這間兩個大／你的孩子現在多大了?／他比小李大三歲.
❸ 程度深: 大紅／眞相大白／大吃一驚／天已經大亮了／病已經大好了
❹ 用于不後, 表示程度淺或次數少: 不大愛說話/ 還不大會走路/ 不大出門
❺ 排行第一老大: 大哥
❻ 年紀大的人: 一家大小
❼ 敬辭, 稱與對方有關的事物: 尊姓大名/ 大作/ 大禮
❽ 用在時令或節日前, 表示强調: 大清早/ 大熱天/ 大年初一

❶❷는 주로 사물의 체적, 면적, 수량, 역량, 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주로 명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❷는 비교대상과의 크기를 주로 말한다. 이에 비해 ❸❹은 주로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결합하여 사물의 크기에서 확대되어 정도의 심화를 나타낸다. ❹는 부정문에서 쓰임을 말한다. ❸❹의 의미는 ❶❷보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❺❻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www.kci.go.kr

쓰이고, ❼은 존경의 의미를 나타낸다. ❽에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 앞에서 강조의 의미로 사용된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 앞에 "大"는 특히 화자의 강한 주관성이 개입된다. '淸早'가 이른 새벽이지만 '大'는 '꼭두새벽'처럼 화자가 느끼기에 아주 이른 아침시간을 뜻한다. '大熱天'나 '大年初一'처럼 다른 시점과는 구분되는 어떤 특징적인 시점에 쓰이기도 하는데, 한국어에서 '낮'을 강조하기 위해 '시뻘건 대낮'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유사한 경우일 것이다. 이때 '크다'라는 의미는 없고, 명절이나 꼭두새벽, 아주 더운 날과 같이 어떤 상대적으로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 시점에 대해 그 특징을 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특정시점이 아니라 평범한 시점도 화자가 주관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강조할 경우에는 '大'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誰啊? 大星期天還不讓人家睡覺。
(누구야? 일요일에 사람 잠도 못자게 하고.)

평소에 바빠 쉴 틈이 없던 사람이 모처럼 쉬는 휴일 이른 아침에 누군가 전화를 해서 잠을 방해했다면 위처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大可'의 화용의미와 전제

지금까지 조동사 '可'와 형용사 '大'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두 단어의 결합인 "大可"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大可'에서 '大'의 의미는 앞서 살펴본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정도의 심화를 나타내는 경우와 유사하며 화자의 주관성이 개입된 강조이다. 그래서 '大可'의 의미를 '可'의 의미가 중심인 '完全可以'로 본다. '大可'가 포함된 문장은 '可'의 다의성으로 인해 '가능', '허가', '가치'의 의미로 해석된다.

www.kci.go.kr

(11) 基础甚好, 但也有大可改進之處。
(기초가 좋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12) 沒有相当的把握, 出國的事, 大可拖后。
(충분한 자신이 없으면 출국은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
(13) 理論上, 如果大家拍了約四十多套五十集長劇, 大可多開一个頻道, 由朝到晚播放劇集。
(이론적으로 만약 50회 드라마 40여 개를 찍는다면 채널을 얼마든지 하나 더 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영할 수 있다.)

(11)은 ‘개선할 수 있다(可改進)’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12)에서는 ‘늦출 수 있다(可拖后)’의 의미가 강조되어 ‘충분히, 얼마든지 늦출 수 있다’의 가능으로 볼 수도 있고, ‘늦추어도 된다’의 허가로 볼 수도 있다. (13)에서도 “大可多開一个頻道”를 가능과 허가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허가’와 ‘가치’의미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14) 所以大家大可相信。
(그래서 모두들 충분히 믿어도 된다.)
(15) 有時間的話, 大可到被紅叶圍繞的三千院看看。
(시간이 있으면, 단풍으로 둘러싸인 싼치엔위엔을 가 봐도 된다.)
(16) 如果你已年滿18歲, 大可去看看。
(만약 네가 이미 18살이 되었으면, 가 봐도 된다.)
(17) 有意關注其的朋友大可來車展現場近距离感受一下駿捷的魅力。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전시회 현장에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駿捷의 매력을 느껴볼 만하다.)
(18) 可見微笑是一門藝術、一門學問, 大可研究。
(미소는 예술이며 학문으로, 충분히 연구할 만함을 알 수 있다.)

예문 (17)에서 ‘자동차전시장에 가서 駿捷의 매력을 느껴볼 만하다’의 ‘가치’로도, ‘자동차전시장에 가서 駿捷의 매력을 느껴보아도 된다’의 ‘허가’로도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www.kci.go.kr

‘大可’ 뒤에 ‘值得’가 올 경우 ‘가치’ 의미가 더욱 강조된다. 이때는 ‘권유’의 의미도 함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9) 大可值得怀疑 (충분히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20) 大可值得玩味 (깊이 음미해 볼 만하다.)
(21) 大可值得研究 (충분히 연구해 볼 만하다.)
(22) 大可值得追究 (충분히 따져볼 만하다.)
(23) 大可值得警惕 (경계할 필요가 있다.)
(24) 1G的內存是必須的, 但是否要2G就大可值得商榷了。
(1기가의 램은 필수지만, 2기가까지 필요한 지는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5) 但征求意見的程序則大可值得商榷。
(의견을 구하는 과정은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음 예와 같이 ‘值得’뒤에 행위의 주체를 명시한 경우는 권유의미가 더 강조된다.

(26) 大可值得我們追問。(우리가 캐물을 필요가 충분히 있다.)
(27) 当然, 如果你正閑着, 本片大可值得你消遣消遣。
(물론, 만약 네가 한가하다면, 이 영화로 충분히 무료함을 달래는 것도 좋다.)

(26)는 우리가 캐물을 필요가 충분하다는 가치의미에서 캐묻는 것이 좋다는 권유의미도 포함한다고 본다. 또한 (27)도 이 영화가 무료함을 달랠 만 하다는 가치의미보다 무료함을 영화로 달래는 것이 좋다는 권유로 보아야 한다. 다음 예들도 권유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28) 她的倡議得到了一致的響應, 是否眞誠, 大可怀疑。
(그녀의 제안은 모두의 호응을 얻었지만, 실제 이루어질지는 의심해 봐야 한다.

www.kci.go.kr

(29) 過去, 我們這儿經常自鳴得意的“价廉物美”, 其實是大可商榷的。
(과거에 우리는 늘 스스로 자기를 대단히 여겨 “값도 싸고 물건도 좋다”로 자랑했는데, 사실 이는 검토해봐야 한다.)
(30) 但是不漲价是不是最佳方案是大可研究的問題。
(그러나 값을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충분히 연구해 보아야 한다.)
(31) 你看都凍起霜了, 說明冷藏得很好, 細菌都被凍死了, 大可放心吃。
(서리가 생긴 걸 보면 냉장이 잘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세균이 모두 얼어 죽었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앞에서 말한 ‘허가’나 ‘가치’를 지칭하던 말들이 ‘권유’로 확대되어 쓰이는 현상은 ‘大可’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서 ‘可’와 ‘可以’의 조동사적 의미는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大可以’도 ‘大可’와 같이 권유로 자주 쓰인다.[5]

(32) 你不想看大可以不看。
(보고 싶지 않으면 안봐도 된다.)
(33) 你大可以去交錢收房, 沒人組織你。
(얼마든지 돈을 주고 집을 살 수 있어.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34) 我現在已經不發燒了, 你大可以放心。
(열이 이미 내렸으니, 안심하세요.)
(35) 有興趣大可以進來看下。
(관심 있으면 들어와서 보세요.)

예문에서 ‘大可以’를 ‘可以’로 바꾸어도 기본의미는 같으나. 강조의미와 주관성이 약화된다. 이제 앞에서 제기한 문제로 다시 돌아 가보자.

5) 李存周(2006)에서는 ‘大可以’의 의미가 평론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으며, 약간 대수롭지 않음의 의미도 띤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장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보 보았다.(‘大可以’傾注了評論者的感情, 稍微帶点不屑的意味。由于評論者稍微帶有不屑的意味, 所以句意往往以消极和否定的方面爲多。)

www.kci.go.kr

(1) 今日發表社評表示, 對于這樣的悲劇, 社會大可沉默。

표면적으로 '이 비극에 대해 사회는 충분히 침묵할 수 있다'로 보면 좀 어색하다. 여기서 "大可沉默"의 의미는 '沉默'의 역인 '張揚'의 의미를 사용하여 '떠벌리지 않아도 된다' 혹은 '떠벌릴 필요가 없다(不必張揚)'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 즉 위 문장은 '이러한 비극에 대해 사회가 지나치게 떠들어댈 필요가 없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원래 A를 권유하던 의미가 그 역인 '-A'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권유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정 의미에 대한 부정권유는 원 의미와 동일하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A'는 A의 반대의미를 뜻한다.)

大可A: A해도 된다, A해야 한다(허가, 가치, 권유)
→ 不必(-A): -A하지 않아도 된다. -A할 필요가 없다. (반대권유)

이 같은 의미해석에 대해 본고는 그 이유가 '大可'의 화용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大可A'라고 말할 때, 화자는 청자(또는 A의 주체)가 A의 반대의미, 즉 '-A'를 떠올릴 것을 예상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A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로 위에서 화자가 "社會大可沉默"라고 말할 때, 화자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사회가 분명히 침묵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어댈 것(-A), 즉 '社會會不沉默, 會張揚'라는 점을 전제[6]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大可沉默"라고 함으로써 그 전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의 부정은 직접 "社會不必張揚"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강조의미가 더 강하다.

(36) a: 社會大可沉默

6) 여기서 '전제'는 문장이 부정되어도 여전히 남는 '預設'가 아니고, 단지 미리 예상한다는 뜻의 '先設'의 의미와 가깝다. '預設'와 '先設'의 개념에 대해서는 沈家煊(1999) 47쪽 참고.

www.kci.go.kr

b: (我想)對此事件社會肯定不會沉默, 會張揚, 其實社會不必那么張揚, 完全可以沉默。

위의 예문 (a)는 정확히 말하면 (b)의 의미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은 위 전제를 부정하는 다음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37) *我想對此事件社會沉默, 其實社會完全可以沉默。

위 분석은 또한 ‘大可’앞에 ‘其實’가 자주 등장하는 현상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

(38) 很多男人因爲怕被人嘲笑而刻意不用護膚品, 其實大可不必。
(많은 남성들이 남들의 놀림이 무서워, 피부보호용품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데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39) 一提到无線, 肯定不少网友會担心它的价格是不是很貴, 其實大可放心。
(무선이란 말만 듣고, 많은 네티즌들이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사실 안심해도 된다.)
(40) 有些人是自信而來垂頭而去, 其實大可不必。
(어떤 사람은 자신있게 와서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41) 其實大可不必因爲考研而封閉自己。
(사실 대학원 입학시험을 위해 자기 자신을 가둘 필요는 없다.)

‘其實’의 어휘적 의미는 말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뜻하지만, 문장에서의 기능은 사실과 다르거나 반대되는 내용을 정정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은 ≪現代漢語八百詞≫(439쪽)에의 ‘其實’에 대한 해석이다.

表示所說的情況是眞實的。
a) 引出和上文相反的意思, 有更正上文的作用。

www.kci.go.kr

例) 听口音像北方人, 其實他是个广東人。

b) 表示對上文的修正或補充。

例) 都說這儿离縣城二十里, 其實只有十五里。

a)예문에서 억양으로 북방인으로 판단한 상황에 대해, 사실은 반대인 남방인(광주)으로 정정하고 있다. b)예문은 20리로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을 15리로 바로잡는다.[7]

'大可'의 전제와 관련된 내용이 문장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음 예문처럼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42) 你大可專心工作, 不要太在意宝宝。
(너는 일에만 전념해라. 아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43) 現在, 很多需要辦理業務的市民往往都會直奔柜台排隊等候, 其實大可先通過電話銀行咨詢。
(현재,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많은 시민들 직접 은행창구로 찾아가 줄서서 기다리는데, 사실 먼저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아기 때문이라는 일에 집중할 수 없음을 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예문에서도 시민들이 먼저 전화로 은행에 문의를 하지 않으리라는 내용(不會先通過電話銀行咨詢) 앞 구절에 드러나 있다. 이러한 전제는 '大可'뒤에 부정사가 출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4) 關于這方面的傳聞, 你大可不去管它。
(이 방면의 소문에 대해서 너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7) 여기서 '其實' 앞 절은 사실이 아니거나 상반되는 내용으로 문장에서 직접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다음 예문에서 사람들이 노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예) 其實我們不缺吃不缺穿, 就缺个能相互說心里話的人!(사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거라곤 마음을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www.kci.go.kr

이 문장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허가’지만, 실제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不必去管它)’의 ‘권유’의 의미이다. 이는 청자가 소문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화자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즉 이 문장은 “이 방면의 소문에 대해 너는 신경이 쓰이겠지만, 사실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의 의미로 볼 수 있다.

‘大可A’가 ‘-A’를 전제하고 있음은 많은 예들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45) 如果手上沒有顔色粘上, 這說明是自然色素, 市民大可放心食用。
(만약 손에 색이 묻지 않으면, 자연색소라는 말이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46) 我們合作的領域還有待擴大, 合作的潛力還大可挖掘。
(우리 협력의 영역은 더 확대할 수 있는데, 협력의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

(45)에서 화자는 시민들이 인공색소임을 걱정하여 안심하고 먹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에 대해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46)도 협력영역이 좁을 거라는 예상에 대해서 발굴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면 ‘大可’가 ‘不必’와 함께 ‘大可不必’의 형태로 고정된 경우는 어떤가?[8] 문장 내에서 ‘大可不必’는 동사구 앞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문장의 끝에서 술어역할을 하기도 한다.

(47) 你大可不必爲這事担憂。
(너는 이 일로 전혀 걱정하지 마라.)
(48) 如果僅僅爲了錢, 他們大可不必遭這份罪。
(만약 단지 돈 때문이라면 그들은 정말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49) 其實, 這种恐惧大可不必。

8) 필자가 북경대에서 제작한 현대한어 코퍼스를 분석한 결과, ‘大可’뒤에 ‘不’가 오는 경우는 28개로, 그 중에서 27개가 ‘大可不必’였다. 이는 ‘大可’뒤에 부정사가 사오는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며, ‘大可不必’가 고정된 형태로 변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www.kci.go.kr

(사실 이러한 공포는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50) 睡沙發大可不必。

(소파에서 잘 필요는 전혀 없다.)

(47)과 (48)는 '大可不必'가 동사구 앞에 사용된 경우이고, (49)와 (50)은 문미에 위치했다. 이 때 '大可'의 전제의미는 '不必'가 지향하는 내용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不必' 뒤의 성분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大可不必' 앞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47)은 상대방이 이 일로 인해 걱정할 것을, (48)은 돈 때문에 그들이 고생을 할 것을 각각 전제하고 있다. (49)에서는 공포를 느끼리라는 것을 전제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50)도 소파에서 자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不必'는 표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권유의미로 쓰이고 있다.[9)]

(51) 每个月爲我這种小事跑一趟大可不必, 從下个月開始, 千万別再跑了。

(매달 사소한 저의 일로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니, 다음 달 부터는 제발 더 이상 오지마세요.)

(52) 其實大可不必担心, 只要一部手机就可以輕松完成投保業務。

(사실 걱정할 필요없다. 핸드폰 하나면 보험가입은 쉽게 할 수 있다.)

(53) 很多百貨店都有追風的習慣, 看到其他百貨店有的品牌, 自己也得有, 似乎是"你有我有"這才是好的, 但其實大可不必這樣。

(많은 백화점들이 유행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다. 다른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는 자기 백화점에도 있어야 하며, "남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大可A'문이 '非A'를 전제하여 사실은 역으로 A가

9) 중국에서 출판된 ≪現代漢語詞典≫, (101쪽)에는 "不必"를 '表示事理上或清理上不需要'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출판된 사전은 "…할 필요가 없다." 외에 "…하지 마라."의 권유의미도 병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중한사전≫, 151쪽.

www.kci.go.kr

충분히 가능함을 나타낸다고 본다. 반면 ‘大可不必A’의 경우에는 A의 부정이 문장에 드러난 경우로 A할 것을 전제하여 사실은 A할 필요가 없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상으로 ‘大可A’와 ‘大可不必A’문의 기본의미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大可’와 의미가 유사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盡可’로 ‘완전히(십분)…할 수 있다’의 뜻이다.[10]

(54) 想吃猪肉盡可放心吃。
(돼지고기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55) 有疑問盡可去咨詢。
(의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56) 不論多么繁雜工作, 盡可從容應對。
(아무리 복잡한 업무라 해도, 충분히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문(54)에서는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먹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55)는 의문이 있을 경우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大可’와 별 차이가 없다. 실제로 위 예문에서 ‘盡可’를 ‘大可’로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54)′ 想吃猪肉大可放心吃。
(55)′ 有疑問大可去咨詢。
(56)′ 一日游、二日游大可自選。

그 밖에 유사한 형태로 간혹 ‘可以’ 앞에 정도부사 ‘很’이 쓰여 ‘可以’의 정도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11]

10) ≪중한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982쪽. 그러나 중국의 ≪現代漢語詞典≫에는 “盡可”가 실려 있지 않는 걸로 보아 단어성에 대한 견해가 일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盡可”는 “가능한 한(盡可能)”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11) ‘可以’에는 조동사의미 외에 형용사의미로 ‘좋다, 괜찮다’도 있는데, 다음 두

www.kci.go.kr

(57) 作者想得可够遠, 心情很可以理解。
(작가가 정말 멀리까지 생각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8) 在這里賣花倒是很可以的。
(여기서 꽃을 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59) 工作是一件很可以打發時間的事情。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은 것은 일하는 것이다.)

예문 (57)에서 작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고, (58)도 여기서 꽃을 파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함을 뜻하고 있다. 여기서도 강조의미이므로 주관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도부사 '很'의 출현빈도가 너무 많아 강조의미가 약화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大可'의 주관성정도가 더 높다고 본다.

Ⅳ. 맺는 말

본고는 중국어 '大可'의 화용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형용사 '大'는 명사 앞에서 사물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에서 확장하여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여 강조의미를 나타내는데, '大可'에서 보듯이 조동사 '可'앞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可(以)'는 '가능'의미를 기본으로 하여 의미확장의 결과 '허가', '가치', '권유'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 또 '大'와 '可'는 모두 비교적 강한 주관성을 가지는데, 이는 의미확장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大可'는 '可以'와 비교하여 '가능, 허가, 가치, 권유' 등의 의미를 강조한다. 본고는 이 강조가 '大可'의 전제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은 '大可'의 의미를 전제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한 자연스러운 현상을 설명해주며, '大可'문에 자주 등장하는 '其實'와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도

예는 형용사 '可以'를 수식한 경우이다. 看了一下很**可以**的片子。(아주 괜찮은 영화를 봤다.) 科學性已經很**可以**了。(과학은 이미 아주 발전했다.)

www.kci.go.kr

이해할 수 있다.

<參考文獻>

李存周, <"可以"用法淺探>, 韶關學院學報(2006 10月, 第27卷 第10期).
劉 利, <先秦助動詞"可"的句法語義功能考察>, 四川大學學報 1996, 第4期.
劉 利, <先秦單音節助動詞考辨>, 北京師范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0, 第2期.
朱冠明, <情態与漢語情態動詞>, 山東外語教學 2005, 第2期.
屈哨兵, <"值得"結构表達被動觀念的形式、動因及相關比較>, 广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 第10期.
沈家煊, ≪不對称和標記論≫, 江西教育出版社. 1999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2003
呂叔湘主編,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199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중한사전≫, 2001년

<中文提要>

本文主要討論了漢語情態動詞"可"受到"形容詞"后形成的"大可"的語用特征。情態是人類語言中一个重要的語法范疇。漢語的情態動詞"可"的語義主要有三种: 可能、允許, 值得。"大可"也具有同樣的意義, 不過其語義比"可"更强, 也具有更高的主觀性。本文認爲"大可"在述語前面表示强調是由于它具有一种預設。'預設'也能說明"大可"經常与"其實"共現的情况。文章最后考察了与"大可"意義相近的"盡可"。

주제어 : 情態動詞, 强調義, 主觀性, 語用, 預設

www.kci.go.kr